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이 영아의 의사표현몸짓, 의성어, 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

송 하 나[†]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의사표현몸짓, 의성어, 어휘 발달에 미치는 어머니 발화 촉진 행동의 영향력과 영아의 성에 따른 차이를 알아보았다. 15-17개월 영아 70명(남아 34, 여아 36)과 어머니가 연구에 참여하였으며, 어머니들은 영아의 언어 발달을 측정하기 위해 MCDI-K에서 선별하고 수정 보완한 의성어 및 어휘 목록과 의사소통행동에 대해 평정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놀이 상호작용과 언어 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한 설문을 실시하였다. 어머니의 모성어 사용은 실험실에서 영아와 어머니가 15분간 자유놀이를 하는 동안 관찰되었다. 연구 결과, 의사표현 몸짓과 의성어의 발달이 영아의 어휘 발달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으며,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 중 모자 간 놀이 상호작용이 영아의 의사표현몸짓과 어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어의 사용은 어휘 발달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놀이 상호작용이 영아의 언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은 남아들에서만 유의하였으며, 여아들의 어휘 발달에는 모성어의 영향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논의에서는 어머니 발화 행동의 역할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어 : 비언어적 의사소통, 의성어, 어휘 발달, 발화촉진행동, 모성어

[†] 교신저자: 송하나, 성균관대학교 아동청소년학과, (03063) 서울시 종로구 성균관로 25-2
E-mail: jni4ever@skku.edu

생후 1-2년은 첫 단어를 습득 한 뒤 언어 발달이 빠른 속도로 일어나는 시기이다. 따라서 양육자가 제공하는 언어 환경에 따라 언어 능력에 개인차가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국내의 여러 선행 연구들은 초기 어휘 발달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어머니 변인으로 어머니가 사용하는 어휘의 다양성(장유경, 이근영, 광금주, 성현란, 2003), 책 읽어주기(김경희, 엄정애, 2007;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아동 지향어 사용(배성봉, 박혜원, 2012), 상호작용과 양육행동(고은, 오숙현, 2006; 조유나, 홍지은, 2010) 등을 다루어왔다. 이 연구들은 공통적으로 어머니의 행동이 영아에게 언어에 대한 흥미와 동기를 불러일으키고 어휘 사용을 자극한다고 보았다.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들이 어휘 수나 문장 구성을 중심으로 한 언어적 의사소통에 관심을 가진 반면, 몸짓과 수신호를 포함하는 비언어적 의사소통에는 주의를 덜 기울여 왔다. 영아기는 언어적 발화만큼 비언어적인 표현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이며,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어휘 발달을 예측하는 요인으로 알려졌다(김연수, 광금주, 2010; Oliver, Dale, & Plomin, 2004).

비언어적 표현의 발달은 인지적 모방 능력을 기초로 한다. 즉, 관찰된 행동을 파지하고 이를 적절한 상황에서 행동으로 산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인지 발달에 문제를 가진 영아들은 신체 표현과 언어 능력에서 모두 지연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그 예로 자폐아들의 신체 표현과 표현 언어 발달의 지연은 서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으며(Mundy, Sigman, Ungerer, & Sherman, 1987), 언어 지연을 보이는 인지장애아 역시 정상아에 비해 비언어적 표현에도 지연을 보였다(Mundy, Kasari,

Sigman, & Ruskin, 1995).

최수진, 방희정과 이순행(2009) 역시 어휘 발달만으로 영아의 의사소통 능력을 충분히 알기 어렵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비언어적 표현은 영아 뿐 아니라 성인에서도 의사소통의 기능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전까지는 연령의 증가에 따라 어휘 사용이 늘어나면서 비언어적 표현이 줄어든다는 입장이 지배적이었지만(Acredolo & Goodwyn, 1985), 언어가 정교화 되는 것 같이 비언어적 표현 또한 정교화 된다(Mundy, Kasari, & Sigman, 1992)고 보는 입장이 더 타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몸짓과 마찬가지로 소리의 모방으로 이루어지는 의성어 역시 명사, 동사와 같은 어휘만큼 영아의 의사소통에 자주 사용된다. 영아들이 자동차를 “뛰뛰”, 강아지를 “멍멍”이라고 부르는 사례는 흔히 관찰되며, 모방적 소리에 대한 선호는 영아기를 지나 유아기까지도 지속되는 것 같다.

장유경(2004)은 한국 영아들이 명사와 더불어 의성어를 가장 먼저 습득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Masur와 Olson(2008)은 10개월에 사회 행동의 모방을, 13개월에 소리와 발화의 모방을 더 잘하였던 영아들이 17-21개월에 어휘의 발달 수준이 높았다고 보고하여, 의성어 사용이 영아기 의사소통 발달의 중요한 단계임을 제시하였다. 물론 어휘의 발달은 상징적 표상의 시작이라는 점에서 몸짓이나 의성어 같은 전언어적 특징과 구별된다. 하지만, 영아기 언어 발달을 의사소통의 측면에서 고려한다면, 어휘 뿐 아니라 신체 표현과 의성어에 대한 어머니의 영향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언어는 사회적 산물이기 때문에 인지적으로 습득된 언어가 사회적 상호작용을 통해 활용

될 때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가능하다.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이 영아들에게는 맨 처음 의사소통을 경험하는 통로이며, 영아의 발화를 격려하는 주 대상 역시 어머니이다(Rawland, 2014). 영아들이 적극적으로 표현하려는 동기를 가질 때 상호작용이 오래 유지될 수 있기 때문에, 어휘 외에도 몸짓이나 의성어 등 영아에게 모든 형태의 발화와 표현을 자유롭게 하도록 격려하는 어머니 행동이 더욱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아의 적극적인 발화와 표현을 촉진시키는 어머니의 행동은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류된다. 첫째, 모성어(motherese 혹은 parentese) 혹은 아동 지향어(child-directed language)로 알려진 발화 촉진 행동의 영향을 들 수 있다. 모성어는 높고 독특한 억양과 리듬, 과장된 어투를 특징으로 하며, 이러한 특징이 언어의 종류에 관계없이 영아의 주의를 끌고 상호작용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왔다(Werker, Pegg, & McLeod, 1994).

그러나 모성어가 영아의 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선행 연구들 간에 상반된 결과들을 보고해왔다. Ramírez-Esparza, García-Sierra와 Kuhl(2014)은 모성어의 사용이 영아의 언어적 발화 및 표현 어휘 발달과 정적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하고, 특히 적극적인 발화가 궁극적으로 어휘 발달로 이어진다고 하였다. 반면, Deckner, Adamson과 Bakeman(2003)의 연구에서는, 어머니가 리듬감 있는 발화를 많이 할수록 18-24월 영아의 어휘 이해와 산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모성어의 특징이 어휘 발달을 도리어 저해할 수 있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모성어를 사용하는 부모들은 “할머니” 대신 “할무”와 같이 아동이 서투르게 발음하는 단

어를 반복하며, 명사를 이해하기 쉬운 의성어로 대치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문법이 파괴된 짧은 문장을 사용하거나, 아동이 대답할 기회를 주지 않고 양육자가 질문과 대답을 동시에 하는 것 역시 모성어의 특징으로 볼 수 있다(Caulfield, 2001). 이러한 요소들이 영아의 주의를 끌고 언어 사용에 대한 흥미와 관심을 불러일으킨다고 하지만, 실제로 모성어를 통해 영아가 정확한 어휘에 대해 듣거나 배울 기회는 많지 않아 보인다.

더욱이, Singh, Morgan과 Best(2002)는 영아가 정적 정서를 수반한 성인 지향어를 모성어보다 더 선호하였다고 언급하면서, 모성어가 영아의 흥미를 끄는데 이점이 있다는 기존의 주장을 반박하였다. 이와 같이 선행 연구들은 모성어의 사용과 영아의 어휘 습득에 대해 상충하는 결과들을 보여주고 있지만, 영아의 비언어적 표현이나 의성어 사용에 대한 모성어의 영향을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언어의 세 가지 차원에 대한 모성어의 영향을 각각 검증하려 하였다.

둘째, 어머니와 영아가 함께 놀이하는 동안 이루어지는 언어적 상호작용은 책 읽기와 더불어 가정에서 영아에게 가장 직접적인 언어적 자극을 전달하는 통로일 것이다. 특히, 역할 놀이와 언어의 발달은 모두 표상의 발달과 관련이 있다(McCune, 1995). 따라서 역할 놀이는 가장적인 대인적 의사소통이 가장 활발하게 나타나는 놀이 형태로 볼 수 있다.

그러나 2세 이전 영아는 역할 놀이보다 혼자 놀이나 병행 놀이를 보이는 경우가 많고(Johnson, Christie, & Yawkey, 1987), 모자 놀이에서도 어머니가 주도적으로 역할 놀이를 수행하는 경우가 많다. 어머니가 놀이를 하는 동안 영아의 눈높이에 맞추어 모성어를 사용

하기도 하지만, 모자 놀이상호작용은 장난감을 매개로 한 공동주의와 주제에 따른 이야기의 구성이라는 점에서 모성어와 구별된다.

영아가 장난감 전화기에 흥미를 보이는 것을 알아차린 어머니가 전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하고 말하거나, 인형을 가지고 말하는 시늉을 할 때, 영아는 전화기의 의미와 기능을 알려주는 어머니의 행동을 관찰함으로써 언어 이해가 더욱 가속화될 수 있다. 즉, 어머니의 단편적인 반응이 아니라 공동주의에 따라 대화를 주고받는 형태로 다양한 사물의 이름과 인물의 화법을 보여줌으로써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될 수 있다(Ninio, 1983; Tomasello, 1988).

이러한 점에서 어머니가 영아에게 책을 읽어주는 행동은 공동주의를 통해 다양한 언어 자극을 제시하는 장난감 놀이와 같은 효과를 가질 수 있다. 영아용 책은 글씨가 적고 감각적 경험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소재로 질감을 표현한 것이 많다. 또한 그림을 중심으로 부모가 이야기를 만들어 나가는 형태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장난감처럼 영아의 주의를 끄는 동시에 언어적 자극을 주는 것이 가능하다. Dickson, Walker와 Fogel(1997)은 책 읽기를 어머니와 영아의 놀이 형태의 하나로 간주하였으며, 국내외 여러 연구들(이지연 등, 2004; Karrass & Braungart-Rieker, 2005; Whitehurst et al., 1988)에서 책읽기가 영아의 언어 발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도 책읽기를 모자 놀이의 한 형태로 포함시켜 짧고 불완전한 형태의 모성어와 복잡한 어휘나 문장의 제시가 가능한 모자 놀이의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려 하였다.

마지막으로, 일상생활에서 영아에게 풍부한 언어 환경을 제공하고 모델링을 통해 발화를 이끌어내는 어머니의 표현성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표현성은 얼굴표정이나 언어와 같은 수단을 통해 개인의 생각과 정서를 표현하는 빈도와 강도로 볼 수 있다(Halberstadt, 1986). 특히, 정서 표출과 같은 비언어적 표현은 개인의 생각이나 내적 상태를 타인에게 드러내는 성격적 특성이다(Tucker & Friedman, 1993). 영아는 부모가 정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관찰함으로써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표출 규칙을 습득한다(Halberstadt, 1986). 같은 원리로 비언어적 표현 뿐 아니라, 화용론의 차원에서 말하는 어조나, 표현의 풍부함, 언어 표현 스타일 등이 어머니의 언어 표현성을 통해 영아에게 전달될 수 있다.

여기서 언어적 표현성은 단순히 말이 많은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질적으로 풍부한 언어적 경험을 제공하는 환경을 의미한다. 선행 연구에서도 단순하고 쉬운 언어의 반복이 아니라, 어머니가 일상적으로 더 복잡하고 다양한 어휘를 표현하는 것이 영아의 어휘 획득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장유경 등, 2003; Huttenlocher, Haight, Bryk, Seltzer, & Lyons, 1991). 그러나, 어머니의 표현성이 영아의 몸짓이나 의성어 사용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충분히 설명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이를 검증하려 하였다.

무엇보다, 표현성에서의 성차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성격 연구에서 자주 보고되어 왔다. 남성에 비해, 여성의 비언어적 표현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이지만, 표현성이 높은 여성은 사교적인 동시에 도전적이고 공격적인 속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Tucker & Friedman, 1993). 또한 부모-자녀 의사소통에 대한 선행 연구(Fivush, 1989; Fivush, Brotman, Buckner, & Goodman, 2000)에서, 어머니와 아버지 모두 남아에 비해 여아에게 정서적인 단어와 애정적

발화를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풍부한 어휘와 비언어적 표현 환경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음을 제시한다. 특히, 애정적 발화는 모성어 사용을 더 빈번하게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즉, 자녀의 성에 따라 부모의 언어적, 비언어적 표현 형태에 차이가 있을 때 (Eisenberg, Fabes, & Spinrad, 1998), 남아와 여아의 의사소통 모델링에도 차이가 나타날 수 있다. 무엇보다 이러한 성차들이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과 영아기의 언어 발달에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의 목적을 요약하면, 첫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의사표현몸짓과 의성어의 발달이 어휘 발달과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의성어나 몸짓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더 정확하게 생생하게 전달해주는 동시에, 어휘 사용을 세련되고 풍부하게 하여, 서로 정적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영아의 발화와 표현을 촉진시키는 어머니의 세 가지 촉진 행동이 영아의 의사표현몸짓, 의성어, 어휘 발달 각각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특히, 의성어를 많이 포함하는 모성어 사용이 영아의 의성어 발달에 미치는 영향이나, 어머니의 언어 표현성이 비언어적 신체 표현에 미치는 영향은 어휘 발달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연구되지 않았으므로, 이러한 점을 더 면밀히 살펴보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과 영아의 언어 발달간의 관계에 성차가 있는지 검증하려 하였다.

연구방법

연구 대상

본 연구는 15-17개월 영아 70명(남아 34명, 여아 36명)과 어머니를 대상으로 실시되었다. 이 시기에는 행동과 소리의 모방이 표상으로 전환되며 어휘의 획득이 가속화된다(Bjorklund, 2012). 이 아동들은 아동발달 종단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대상 어머니들의 연령대는 20-40대로 대부분의 어머니가 비취업 모였다. 거의 모든 어머니가 고졸 이상이었고 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어머니는 약 30%였다. 또한 연 소득 3000-4000만원인 가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연구 도구

영아의 언어 발달

본 연구의 대상인 15-17개월의 영아들에게 실시할 수 있는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M-B CDI: Fenson, Marchman, Thal, Dale, Reznick, & Bates, 2007)와 M-B CDI 구판의 한국어판인 MCID-K(배소영, 광금주, 김미배, 이현숙, 정경희, 2008) 및 장유경(2004)이 산출 빈도에 따라 제시한 어휘 목록을 종합하고 수정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MCID-K는 284개의 어휘에 대한 영아의 이해 및 산출 여부를 어머니나 양육자가 평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언어는 사회와 시대적 흐름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십여 년 전에 제작된 어휘 목록들이 디지털 세대인 현대의 영아들에게도 친숙한 것들인지 1명의 전문가와 함께 안면 타당도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우리나라 뿐 아니라 모든 문화권에서 공통적

으로 친숙한 어휘를 중심으로 선별하였다.

그 결과, “곤지곤지” 같은 어휘를 삭제하였고 자동차 소리도 “뽕뽕”이나 “부릉 부릉” 외에 “뚜뚜”와 “삐뽀삐뽀”와 같이 최근에 쓰이는 의성어를 함께 괄호에 제시하였다. 또한 의성어와 일반 어휘를 구분하고 M-B CDI의 의사소통행동에도 항목을 추가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언어 발달 하위 요소별 항목들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성어는 동물과 자동차 소리(예: 멍멍, 야옹, 짹짹, 부릉 부릉, 칙칙폭폭, 남남) 등의 12항목을 사용하였다. 일반 어휘는 일상적으로 친숙한 동물(예: 강아지, 고양이, 오리, 기린, 코끼리 등), 운송 수단(예: 자동차, 기차, 비행기 등), 장난감(예: 인형, 블록 등), 음식(예: 우유, 사과, 바나나, 당근), 신체 부위(예: 눈, 코, 입, 머리)와 사람(예: 엄마, 아빠, 아기, 누나, 형)을 지칭하는 단어 80항목을 사용하였다. 또한 의사표현 몸짓은 고개를 끄덕이거나, 잘 가라고 손을 흔들거나, 손가락이나 손을 뻗어 원하는 것을 달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의 12항목을 사용하였다.

어머니들에게 영아가 어휘나 의성어를 이해하는지 혹은 사용한 적이 있는지 체크하게 하였고 이해와 산출에 각각 0 혹은 1점을 주어 각 항목별 점수 범위는 0-2점이었다. 또한 의사표현몸짓은 각 항목에 해당하는 행동을 어머니가 자주 관찰하였으면 2점, 관찰한 적이 있으면 1점, 행동을 관찰한 적이 없으면 0점을 주도록 하였다. 내적 합치도를 구한 결과, Cronbach's alpha는 의성어 .73, 일반 어휘 .95, 비언어적 표현 .76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

놀이 상호작용. 본 연구에서는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HOME: Caldwell & Bradley, 1984)와 Rodriguez와 Tamis-LeMonda(2011)를 참고하여 가정에서 영아에게 발화나 비언어적 표현을 이끌어낼 수 있는 모자 놀이에 대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12문항들을 공통적으로 가정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놀이 행동들이었다. 각 문항들은 전화기를 들고 영아와 통화하는 시늉을 하며 가작화 놀이한다, 까꿍 놀이를 한다 등의 놀이 활동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다. 또한 이야기 지어 들려주기와 동화책 읽어주기, 숫자/글자 놀이하기 등은 영아에게 학습이 아니라 놀이와 같은 의미이기 때문에 포함시켰다. 어머니들은 각 문항을 읽고 일상적으로 얼마나 자주 이런 놀이를 하는지, '전혀 하지 않는다' 에서 '자주 한다' 까지 3점 척도로 평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61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성어 사용. 본 연구에서는 실험실에서 모자상호작용의 관찰을 통해 모성어 사용을 관찰하였다. 영아와 어머니는 장난감이 있는 관찰실에서 15-20분간 자유놀이를 하였다. Caulfield(2001)가 제시한 준거에 따라 일반어보다 느리고 과장된 발음(예: 어이쿠우우), 억양의 변화(예: 좋아?↘), 의성(태)어 사용(예: 뚜뚜), 반복과 운율의 사용(예: 쿵쿵 쿵순이가), 아기의 발음 따라하기(예: 음마뜨(엄마도)), 전보식 문장 사용(예: 빨강 여기의 6가지 형태)가 나타나는지 살펴보았다.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관찰 평정자가 일방경 뒤에서 모성어 출현 빈도를 구하였다. 중복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다른 영역별로 빈도를 계산하였고 전체 빈도는 합산하여 개인 점수를 구하였다. 전체 사례 중 녹화된 20%의 사례를 다른 평정자가

분석하였다. 모성어 출현 빈도 중 두 평정자가 일치하게 평정한 빈도가 .80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표현성.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언어 표현성을 측정하기 위해, McCrae와 Costa (1990)의 5요인 성격 요인 중 외향성 하위요인과 Self- Expressive Family Questionnaire(SEFQ: Halberstadt, Cassidy, Stifter, Parke, & Fox, 1995)에서 12문항을 사용하였다. 이 문항들은 외향성의 속성 중 말하기 좋아함, 사교성, 적극성에 해당하는 7문항(예: 나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잘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기분이 좋지 않을 때 그 이유를 이야기한다, 내 기분이 얼굴에 드러나서 숨기기 어렵다)과 SEFQ의 정적정서 표현성 하위 영역 중 뚜렷한 얼굴 표정과 언어 표현을 포함하는 5문항(예: 날씨가 좋다고 감탄한다,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말한다)으로 구성되었다. 어머니들은 각 문항을 읽고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까지 6점 척도로 답하였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가 .74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과정과 자료 분석

영아의 언어발달 척도와 어머니의 발화촉진 행동에 대한 설문지를 어머니들이 집에서 수행하고 영아와 관찰실을 방문할 때 가져오거나 우편으로 발송하였다. 연구자는 영아와 어머니가 낮설어하지 않고 놀이를 시작할 때까지 함께 이야기를 나누며 라포를 형성하였다. 자유놀이는 15-20분 정도 지속되었으며 관찰 평정자 1인이 일방경을 통해 평정을 수행하였다. 또한 전체 20%의 사례를 녹화하여 이후 다른 평정자가 분석하고 두 평정자 간 일치도

를 구하였다.

통계 분석은 우선, 각 변인에 대한 평균과 표준편차를 제시하고,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다음으로, 의사표현몸짓, 의성어, 어휘발달에 대한 어머니의 발화촉진행동의 영향력과 성차를 알아보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모든 분석에는 SPSS version 21.0을 사용하였다.

연구결과

기술치 분석 결과

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변인들의 기술치 분석 결과가 표 1에 나타나 있다. 표 1은 전체 아동과 남아 및 여아 집단 각각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보여준다. t-test결과 변인들에서 유의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연구 문제 분석 결과

연구 문제 분석을 위해 먼저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을 실시하여 관련성을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영향력을 검증하기 위한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의사표현몸짓, 의성어, 어휘 발달간의 관계

표 2에 제시된 상관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영아의 의사표현몸짓이 어휘($r=.31, p<.01$) 발달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의성어와 어휘 발달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r=.66, p<.001$). 그러나 몸짓과 의성어 간의 상관은 유의하지 않았다.

다음으로, 영아의 어휘 발달을 준거변인으

표 1. 영아와 어머니 변인의 기술치 분석

변인들	남아 (n=34)		여아 (n=36)		전체 (n=70)	
	M	SD	M	SD	M	SD
[영아 변인]						
의사소통몸짓	15.74	4.52	16.06	4.00	15.90	4.23
의성어	10.15	4.74	8.92	4.95	9.51	4.85
어휘	49.38	21.61	46.31	21.19	47.80	21.29
[어머니 변인]						
놀이상호작용	8.24	1.94	8.75	2.14	8.50	2.05
모성어사용	.15	2.10	.28	2.71	.17	2.42
언어표현성	60.15	5.83	59.19	6.62	59.66	6.22

표 2. 영아와 어머니 변인들 간의 상관 분석 (n=70)

	1	2	3	4	5
[영아 변인]					
1. 의사표현몸짓	-				
2. 의성어	.17	-			
3. 어휘	.31**	.66***	-		
[어머니 변인]					
4. 놀이상호작용	.44***	.16	.33**	-	
5. 모성어사용	.20	.09	.19	.05	-
6. 언어표현성	.27*	-.13	-.12	.15	.24*

* $p < .05$, ** $p < .01$, *** $p < .001$

로 언어표현몸짓과 의성어의 영향력을 회귀 분석으로 알아보았다. 분석 결과 의성어($\beta = .62, p < .001$)가 언어표현몸짓($\beta = .21, p < .01$)보다 어휘 발달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회귀 모델은 .001수준에서 유의하였다.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이 영아의 언어 발달

에 미치는 영향

표 2에서,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 중 놀이 상호작용은 의성어를 제외한 영아의 의사표현몸짓($r = .44, p < .001$) 및 어휘($r = .33, p < .01$) 발달과 정적 상관이 유의하였다. 또한 어머니의 언어 표현성 역시 영아의 몸짓($r = .27, p < .01$)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모성어 사용과 영아 변인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었다.

이러한 상관관계를 바탕으로, 영아의 의사표현모짓과 어휘 발달을 준거변인으로 한 회귀 분석 결과가 표 3에 제시되어 있다. 표 3에서는 어머니의 놀이 상호작용만이 영아의 의사표현모짓($\beta=.41, p<.001$) 및 어휘($\beta=.35, p<.01$) 발달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나타났다. 상관 분석에서는 어머니의 언어표현성과 영아의 의사표현모짓과의 관련성 역시 유의하였으나, 놀이 상호작용과 함께 회귀

식에 투입했을 때 언어 표현성의 영향력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과 영아의 언어 발달과의 관계에서의 성차

표 4는 남아와 여아 집단 각각에서의 상관 분석 결과를 보여준다. 표에서 대각선을 중심으로 아래쪽은 남아, 위쪽은 여아 집단에서의 상관을 제시하고 있다.

표 4에 따르면, 남아에서는 어머니의 놀이 상호작용이 영아의 언어표현모짓($r=.58, p<.001$) 및 어휘($r=.41, p<.05$) 발달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나, 여아에서는 이 변인들 간의 유의한 상관이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어머니의 모성어 사용과 여아의 어휘 발달($r=.33, p<.05$) 간에 유의한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어머니의 언어표현성과 여아의 몸짓($r=.41, p<.05$) 간에도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유의한 상관이 어머니 변인과 영아 변인 하위 요인들 간에 1:1로 나타났다으므로 어머니의 발화촉진행동들의 상대적 영향력을 따로 회귀로 분석하지 않았다.

표 3. 영아의 언어 발달에 대한 어머니 발화 촉진 행동의 영향 (n=70)

예측변인	의사표현모짓		어휘	
	β	t	β	t
놀이상호작용	.41	3.84***	.35	3.15**
모성어사용	.14	1.27	.23	1.97
언어표현성	.17	1.58	-.22	1.92
R ²	.26		.19	
F	7.61***		5.01**	

** $p < .01$, *** $p < .001$

표 4. 남아(n=34)와 여아(n=36) 집단에서의 상관 분석

남아	여아	1	2	3	4	5	6
1. 언어표현모짓	-		.07	.17	.31	.11	.41*
2. 의성어	.28	-		.61***	.25	.20	.01
3. 어휘	.45**	.70***	-		.29	.33*	-.07
4. 놀이상호작용	.58***	.10	.41*	-		.10	.21
5. 모성어 사용	.31	-.03	.02	-.07	-		.30
6. 언어 표현성	.12	-.33	-.19	.09	.16	-	

* $p < .05$, ** $p < .01$, *** $p < .001$

Note. 대각선 아래 남아, 위는 여아의 상관

예측 변인과 준거 변인이 각 한 개씩이면, 회귀 계수 값은 상관 분석 결과와 동일하므로 상관 분석 결과의 유의성으로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어머니의 놀이 상호작용은 여아가 아닌 남아의 언어에만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어머니의 언어 표현성과 모성어 사용은 여아들의 의사표현몸짓과 어휘에 각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논 의

본 연구는 영아의 의사소통의 구성 요소인 의사표현몸짓, 의성어, 어휘 발달간의 관계를 알아보고,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이 영아의 언어 발달 각각에 미치는 영향과 성차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영아의 의사표현몸짓과 의성어는 어휘 발달과 정적 상관이 있었으며, 의성어가 몸짓에 비해 어휘 발달을 상대적으로 더 잘 예측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몸짓과 의성어를 더 많이 사용한 영아가 어휘를 더 풍부하게 사용하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몸짓을 포함한 비언어적 의사소통과 소리 모방 능력이 영아의 어휘 발달을 예측한다는 결과는 이전 연구들에서도 보고되어 왔다(김연수, 곽금주, 2010; Oliver et al., 2004). 그러나 이러한 예측은 대부분 중단적 관계를 기반으로 이루어져 왔다. 비언어적 표현과 의성어 같은 소리 모방을 1세 이전의 전언어기적 특징으로 보고, 표상의 발달과 함께 신체적 표현이나 모방적 소리가 어휘로 대치되어 간다고 하였다(Masur & Olson, 2008).

이처럼 선행 연구들은 어휘가 늘어나면서 몸짓이나 소리 모방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지만, 본 연구에서는 같은 연령대에서 어휘 능력이 뛰어난 영아가 몸짓, 의성어도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비언어적 표현이나 의성어의 사용이 언어적 의미를 풍부하게 전달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영아기 동안 의사소통 수단 전체가 함께 정교화 되어 상보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발달해 가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몸짓과 의성어 사용간의 관련성은 유의하지 않았다. 의사표현몸짓과 의성어의 사용은 모두 모방이라는 기제와 관련이 있고, 언어 지연을 보이는 자폐아가 지연된 신체표현과 무의미한 발성을 보이지만(Mundy et al., 1987), 본 연구에서는 관련성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언어는 효율성의 원리를 따르는 경향이 있다. 명칭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 대명사를 발달시키거나, 적절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 역시 무의식적으로 효율성을 추구하는 행위로 볼 수 있다. 몸짓이나 의성어만으로는 아무리 많이 사용하더라도 의미를 정교하게 전달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두 가지는 언어 표상인 어휘의 의미와 이해를 보완하는 방향으로 발달하는 것 같다.

둘째, 연구 결과,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 중 영아의 의사표현몸짓과 어휘 발달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것은 놀이 상호작용이었으며, 모성어는 영아의 언어 발달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다른 세 가지 발화 촉진 행동 중 모성어는 반응성, 언어 표현성은 모델링, 놀이 상호작용은 직접적인 언어 자극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놀이 상호작용은 놀이처럼 수행되는 영아와의 책 읽기와 이야기 들려주

가가 포함된 개념이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직접적으로 언어 자극을 제시하는 것이 아동의 언어 발달을 가장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임을 보여준다. 물론 자극이 학습이 아닌 즐거운 놀이 경험의 형태로 영아에게 주어져야 함은 당연하다.

영아와 어머니의 놀이는 공동주의를 통해 어휘를 소개하고, 사물의 기능이나 역할을 설명할 수 있으며, 언어를 사용하는 맥락에 대한 정보를 알려줄 수 있다(Karras & Braungart-Rieker, 2005; Tomasello, 1988). 특히, 역할 놀이는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 중에서, 가장 완전한 형태의 구어적 문장이나 주제가 있는 이야기로 이루어진다. 짧고 쉬운 형태의 모성어나 간접적 환경인 언어 표현성보다 더 체계적인 기승전결 구조의 언어적 자극이 제공될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어머니가 복잡하고 다양한 어휘를 사용하는 것이 단순한 언어를 반복하는 것 보다 영아의 어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장유경 등, 2003; Huttenlocher et al., 1991). 그러나 이보다 짜임새 있는 이야기와 사회적 대화 형태의 언어적 경험을 제시하는 것이 언어 발달에 더 이점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모성어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아, 흥미를 자극하고 주의를 전환시키는 것만으로는 높은 수준의 언어 발달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주장을 지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문법이 파괴된 불완전한 형태의 단순하고 쉬운 언어적 자극을 제시하는 것 보다 완전한 형태의 풍부하고 체계적인 언어 자극이 영아의 언어 발달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확인시켜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의성을 많이 포함하는

어머니의 모성어 사용이 영아의 의성어 발달과도 유의한 관련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정(2009)은 모성어가 음절을 불규칙적으로 분화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는데, “멍멍”을 “멍머어~영/”으로 분절하여 발음할 때 이 두 가지를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것이 방해받을 수 있다. 음절에 대한 정보가 모여 어휘를 구성하기는 하지만, 지나치게 과장된 의성어 사용이 영아의 의성어 발달에도 큰 도움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모성어와 영아의 언어 발달은 부적인 상관을 보이지는 않았다. 즉, 본 연구에서는 모성어가 언어 발달을 도리어 저해한다는 주장을 지지하는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처럼 모성어의 영향에 대해 뚜렷하지 않은 점이 있어 추후 연구에서 이를 밝힐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본 연구에서는 15-17개월 영아를 다루고 있는데 이 시기는 40단어 정도의 단어 획득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도 모성어의 사용이 이전보다 줄어들었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모성어와 언어 문법의 충돌이 본격화되는 것이 2세 경(Reilly & Bellugi, 1996)이라는 주장을 고려하면 보다 어린 영아에서는 모성어와 어휘 발달에 대한 결과가 다를 수 있어 이후 연구에서 검증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발화 촉진 행동과 영아의 언어 발달 간의 관계에 유의한 성차가 나타났다. 남아 집단에서는 어머니의 놀이 상호작용과 어휘 발달간의 관계가 나타났다. 그러나 여아 집단에서는 남아 집단과는 달리 놀이 상호작용의 영향이 유의하지 않았고, 반대로 이전에는 유의하지 않았던 모성어 사용이 어휘 발달에, 언어 표현성이 의사표현몸짓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

났다. 모성어 사용은 짧고 단순한 자극을 주로 제시함에도 불구하고 여아의 어휘 발달에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언어 발달에서의 성차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식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여아가 남아보다 언어 유창성이나 이해 능력 모두에서 더 뛰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성차에 신경학적 근거가 제시되었다(Cameron, 1992; Sommer, Ramsey, Mandl, & Kahn, 2003). 여아에 대한 모성어와 언어 표현성의 영향력은 부모-자녀간 의사소통에서의 성차와도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남아보다 여아에게 더 정서적이고 애정적인 표현을 많이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Fivush et al., 2000), 여성이 남성보다 정서적 각성이 더 빨리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Kring & Gordon, 1998). 이는 다시 말해, 여아가 어머니와의 상호작용에서 더 표현적인 경험을 할 가능성이 높고, 정서적인 자극에 반응하는 경향 역시 높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발화촉진 행동이나 영아의 언어발달 모두에서 성차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사한 언어적 자극에 대해 남아와 여아가 영향을 받는 정도에는 차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 모성어의 사용은 언어 형태의 파괴라는 점에서는 불리한 측면이 있으나, 긍정적인 정서 표현과 애정적인 어투를 포함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모성어는 의사소통의 동기를 일으키는데, 이 때 남아보다 여아가 더 민감하고 강하게 반응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환경 속에서도 남아보다 여아가 언어적 자극에 더 흥미를 가지는 경향이 있다면 모델링할 기회를 더 자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편, 놀이 상호작용처럼 직접적인 방식이 아니라, 모성어와 같이 흥미를 유발하거나 모델링을 통해 의사소통을 자극하는 다소 간접적인 방식의 발화 촉진 행동에 역치가 적용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준다. 즉, 어머니의 행동이 영아의 언어 발달 전반에 영향을 미치려면 어느 정도의 강도와 자극의 양이 필요할 수 있다. 한국 어머니뿐 아니라 아버지들도 아들보다 딸과 정서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경향이 있고(송하나, 2008), 남아들에게는 정서적 표현을 억제하는 문화적 규준이 작용한다(김은경, 도현심, 김민정, 2007). 이러한 특성이 같은 언어 환경 속에서 남아와 여아가 자극을 받는 양과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짐작된다. 성차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에서 더 상세히 다루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성차에 대한 결과들은 영아의 언어 발달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남아에게는 직접적으로 풍부한 언어적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여아에게는 애정적이고 표현적인 환경을 제공하고 의사소통에 대한 동기와 흥미를 불러일으키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음을 시사한다.

후속 연구를 위한 제언을 추가하자면, 우선, 모성어의 사용 여부 뿐 아니라 이에 대한 영아의 반응을 함께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본다. 어머니의 발화 자극 행동을 일방적인 차원에서 벗어나 영아와의 반응성을 고려한 양방향 차원에서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영아기의 다양한 연령층을 다루지 못하였는데 의사표현모짓, 의성어, 어휘의 체계적인 발달 양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중단적 설계와 횡단적 설계를 동시에 비교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는 어머니에게 영아의 언어사용을 보고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후 관찰을 통해 보다 객관적으로 언어 산출과 이해를 평가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 고 은, 오숙현 (2006). 어머니와의 상호작용 유무에 따른 영아기 언어발달 비교분석. *특수아동교육연구*, 8(1), 19-40.
- 김경희, 엄정애 (2007). 노래 그림책이 걸음마기 영아의 읽기 흥미 및 어휘력 발달에 미치는 영향. *교육과학연구*, 38(1), 75-94.
- 김민정 (2009). 한국어 아동 지향어에 나타난 폐쇄음의 음향 음성학적 특징. *말소리와 음성과학*, 1(3), 117-122.
- 김연수, 곽금주 (2010). 영아기 어머니의 언어적 반응성 및 영아의 비언어적 의사소통 능력과 아동 초기 언어능력간의 관계. *인간발달연구*, 17(1), 191-207.
- 김은경, 도현심, 김민정 (2007). 자녀의 정서표현에 대한 부모의 태도, 남녀 아동의 정서조절 능력 및 사회적 능력간의 관계. *아동학회지*, 28(3), 115-131.
- 배소영, 곽금주, 김미배, 이현숙, 정경희 (2008). MB CDI-Korean 축약판 개발. *음성과학*, 15(2), 119-129.
- 송하나 (2008). 아동의 부정적 정서에 대한 아버지의 반응과 아버지에 대한 아동의 표상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 *인간발달연구*, 15(2), 69-85.
- 이지연, 이근영, 장유경 (2004). 어머니의 책 읽기 상호작용 유형이 영아의 초기 어휘 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7(1), 131-146.
- 장유경 (2004). 한국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 8개월-17개월.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23(1), 77-99.
- 장유경, 이근영, 곽금주, 성현란 (2003). 어머니의 언어적 입력이 영아의 초기 어휘발달에 미치는 영향.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16(4), 227-241.
- 조유나, 홍지은 (2010). 영아의 수용언어 및 표현언어 발달에 대한 영아의 기질과 어머니 양육행동의 영향. *영유아보육학회지*, 64, 99-117.
- 최수진, 방희정, 이순행 (2009). 화용론적 관점에서 본 한국 영아의 명사 및 동사 습득의 양상. *한국심리학회지: 발달*, 22(1), 115-137.
- Acredolo, L. P., & Goodwyn, S. W. (1985). Symbolic gesturing in language development. *Human Development*, 28(1), 40-49.
- Bjorklund, D. F. (2012). *Children's thinking: Cognitive development and individual differences*(5th edition). NY: Wadsworth/Cengage Learning.
- Caldwell, B. M., & Bradley, R. H. (1984). *Home observation for measurement of the environment*. Little Rock: University of Arkansas.
- Caulfield, R. A. (2001). *Infants and toddlers*. NJ: Prentice Hall.
- Cameron, D. (1992). Not gender difference but the difference gender makes-explanation in research on sex and language. *International Journal of the Sociology of Language*, 94(1), 13-26.
- Deckner, D. F., Adamson, L. B., & Bakeman, R. (2003). Rhythm in mother-infant interactions. *Infancy*, 4(2), 201-217.
- Dickson, K. L., Walker, H., & Fogel, A. (1997).

- The relationship between smile type and play type during parent-infant play. *Developmental Psychology*, 33(6), 925.
- Eisenberg, N., Cumberland, A., & Spinrad, T. L. (1998). Parental socialization of emotion. *Psychological Inquiry*, 9(4), 241-273.
- Fenson, L., Marchman, V. A., Thal, D. J., Dale, P. S., & Reznick, J. S. (2007). *MacArthur-Bates Communicative Development Inventories: User's guide and technical manual*. Baltimore, MD: Brooks.
- Fivush, R. (1989). Exploring sex differences in the emotional content of mother-child conversations about the past. *Sex Roles*, 20(11-12), 675-691.
- Fivush, R., Brotman, M. A., Buckner, J. P., & Goodman, S. H. (2000). Gender differences in parent-child emotion narratives. *Sex Roles*, 42(3-4), 233-253.
- Halberstadt, A. G. (1986). Family socialization of emotional expression and nonverbal communication styles and skil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1(4), 827.
- Halberstadt, A., Casidy, J., Stifter, C., Parke, R., & Fox, N. (1995). Self-expressiveness within the family context: psychometric support for a new measure. *Psychological Assessment*, 7, 1, 93-103.
- Huttenlocher, J., Haight, W., Bryk, A., Seltzer, M., & Lyons, T. (1991). Early vocabulary growth: Relation to language input and gender. *Developmental Psychology*, 27(2), 236.
- Johnson, J. E., Christie, J. F., & Yawkey, T. D. (1987). *Play and early childhood development*. IL: Scott, Foresan and Company.
- Karrass, J., & Braungart-Rieker, J. M. (2005). Effects of shared parent-infant book reading on early language acquisition. *Journal of Applied Developmental Psychology*, 26(2), 133-148.
- Kring, A. M., & Gordon, A. H. (1998). Sex differences in emotion: expression, experience, and physiolog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74(3), 686-703.
- Masur, E. F., & Olson, J. (2008). Mothers' and infants' responses to their partners' spontaneous action and vocal/verbal imitation. *Infant Behavior & Development*, 31(4), 704-715.
- McCrae, R. R., & Costa, P. T. Jr. (1990). *Personality in adulthood*. NY: Guilford Press.
- McCune, L. (1995). A normative study of representational play in the transition to language. *Developmental Psychology*, 31(2), 198.
- Mundy, P., Kasari, C., & Sigman, M. (1992). Nonverbal communication, affective sharing, and intersubjectivity.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5(3), 377-381.
- Mundy, P., Kasari, C., Sigman, M., & Ruskin, E. (1995). Nonverbal communication and early language acquisition in children with Down syndrome and in normally developing children. *Journal of Speech, Language, and Hearing Research*, 38(1), 157-167.
- Mundy, P., Sigman, M., Ungerer, J., & Sherman, T. (1987). Nonverbal communication and play correlates of language development in autistic children. *Journal of Autism and Developmental Disorders*, 17(3), 349-364.
- Ninio, A. (1983). Joint book reading as a multiple vocabulary acquisition device. *Developmental Psychology*, 19(3), 445.

- Oliver, B., Dale, P. S., & Plomin, R. (2004). Verbal and nonverbal predictors of early language problems: An analysis of twins in early childhood back to infancy. *Journal of Child Language*, 31(3), 609-631.
- Ramírez Esparza, N., García Sierra, A., & Kuhl, P. K. (2014). Look who's talking: speech style and social context in language input to infants are linked to concurrent and future speech development. *Developmental Science*, 17(6), 880-891.
- Rawland, S. (2014). *Understanding child language acquisition*. London: Routledge.
- Reilly, J. S., & Bellugi, U. (1996). Competition on the face: Affect and language in ASL motherese. *Journal of Child Language*, 23(1), 219-239.
- Rodríguez, E. T., & Tamis-LeMonda, C. S. (2011). Trajectories of the home learning environment across the first 5 years: Associations with children's vocabulary and literacy skills at prekindergarten. *Child Development*, 82(4), 1058-1075.
- Singh, L., Morgan, J. L., & Best, C. T. (2002). Infants' listening preferences: baby talk or happy talk?. *Infancy*, 3(3), 365-394.
- Sommer, I. E., Ramsey, N. F., Mandl, R. C., & Kahn, R. S. (2003). Language lateralization in female patients with schizophrenia: an fMRI study. *Schizophrenia Research*, 60(2), 183-190.
- Tomasello, M. (1988). The role of joint attentional processes in early language development. *Language Sciences*, 10(1), 69-88.
- Tucker, J. S., & Friedman, H. S. (1993). Sex differences in nonverbal expressiveness: Emotional expression, personality, and impressions. *Journal of Nonverbal Behavior*, 17(2), 103-117.
- Werker, J. F., Pegg, J. E., & McLeod, P. J. (1994). A cross-language investigation of infant preference for infant-directed communication. *Infant Behavior and Development*, 17(3), 323-333.
- Whitehurst, G. J., Falco, F. L., Lonigan, C. J., Fischel, J. E., DeBaryshe, B. D., Valdez-Menchaca, M. C., & Caulfield, M. (1988). Accelerating language development through picture book reading. *Developmental Psychology*, 24(4), 552.
- 1차원고접수 : 2016. 07. 15.
수정원고접수 : 2016. 08. 23.
최종게재결정 : 2016. 08. 30.

The influence of maternal utterance-facilitation behaviors on infants' nonverbal expression, onomatopoeia and lexical development

Hana Song

Dept. of Child Psychology & Educ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infants' nonverbal expression, onomatopoeia, and lexical development, and mothers' utterance-facilitation behaviors. Seventy infants aged 15-17 months and their mothers participated in this study. Mothers completed questionnaires to evaluate both their infants' language development and the mothers' play interaction behaviors and language expression. Mothers' use of "motherese" was also observed in a 15-minute free play setting between mothers and infants. Results showed that infants' nonverbal expression and the use of onomatopoeia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lexical development, and mothers' play interaction positively predicted infants' language development. In addition, the relationship between maternal behavior and infants' language development varied with gender. Discussion included the role of direct and indirect input of mothers' utterance-facilitation behaviors.

Key words : Nonverbal expression, Onomatopoeia, Lexical development, Infants, mothers' utterance-facilitation behaviors